

# 유럽 건너간 JY, AI·전장 관련 깜짝 M&A 나오나

〈車에 사용하는 전자장치〉



지난 4월 해외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전후 김동연 부총리 만날 듯  
유럽 완성차에 ADAS 탑재 예정

세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이후 다섯 번째 출장이며 두 번째 유럽행인 이번 출장이후 이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출국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인도출장 후 지난달 11일 귀국한 직후 유럽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회장은 오는 6일을 전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이 부회장은 이번주 안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럽 출장은 기간이 비교적 길고 직후 김 부총리를 만나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유럽과 삼성전자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연관짓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유럽은 삼성이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으로 중점을 두는 인공지능(AI)이 발전한 지역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22일 영국 케임브리지에 시작으로 같은 달 24일 캐나다 토론토, 2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새 인공지능 연구소의 문을 차례로 열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우수 인재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연구개발 거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2020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민관을 포함한 총

200억유로(약 26조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이에 유럽 로봇산업 연합단체인 EU나이트(EUnited)는 유럽 산업계가 미국, 중국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찬성했다.

또한 유럽은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 강국이 많은 만큼 전장산업 쪽에도 적극적이다. 커넥티드카 분야 등에 유수의 유럽 자동차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연구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10일(현지시간) CES 2018에 하만과 함께 만든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제품도 공개했다. 삼성은 이 시스템이 2021년 출시 예정인 유럽 완성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폭스바겐그룹 소속 세아트와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에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3월 프랑스와 캐나다

를 거치며 AI사업을 논의했으며 5월 출장에서 중국과 일본을 찾아 자동차 전장 사업과 반도체사업 등에 대해 최고경영자(CEO)와 이야기를 나누는 바 있다. 7월 인도 출장에서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 준공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다섯 번째 출장 가운데 이후 인공지능이나 전장사업에서 큰 규모의 인수합병(M&A) 등 발표가 있을 것이라 관측이다. 삼성전자가 7월 말부터 자회사인 하만을 통해 개발한 인공지능 스피커에 주력하는 만큼 관련 원천기술을 가진 해외 업체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한 유럽의 인공지능과 전장산업 투자 현황은 본 이 부회장이 귀국후 삼성 내부 역량 향상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인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현대차의 글로벌 공략... 사우디선 '여심잡기'-美·中선 '신차 공세'



사우디 여성 캠페인·특화 마케팅  
하반기 경쟁력 다양한 신차 라인업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를 위해 신차 출시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는 올 하반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일부 신흥시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가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판매량 감소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잠재고객 600만명 '여심잡기'

2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여성 운전이 허용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심 잡기에 나섰다. 유명 여성 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여성 운전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여성 친화적 디지털 쇼룸을 개설하고 여성 특화 시승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현지 신차 보도 발표회, 여성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브랜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동성의 자유를 갖게 된 사



사우디아라비아의 현대차 브랜드 홍보대사로 선정된 패션 디자이너 림 파이잘, 사업가 바이안 린자위,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여행 블로거인 샤디아 압둘 아지즈(왼쪽부터)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우디 여성들이 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whatsnext'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사우디에서 여성 운전이 허용된 당일부터 whatsnext 캠페인의 사전 티저 영상을 마이크로 사이트를 비롯한 현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등을 통해 게재했다. 캠페인 티저 영상은 현재까지 페이스북에서 150만부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또 여성 전용 시승차 운영 대수를 확대하고, 시승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승 전용 앱을 개발하는 등 여성 특화 시승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차량에 적용되는 사양도 차

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을 배려해 프론트 도어 선제이드를 제공하고, 옷이 차량 도어에 끼는 것을 방지하는 '도어 기임 경보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신규 개발해 적용했다.

이외에도 별도의 전담조직인 '사우디 여성 고객 케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우디아라비아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및 판매전략 수립, 현지 시장조사, 이슬람 율법을 포함한 법규 점검 등을 진행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이중 가운데 600만 명 정도가 운전면허증 시험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美·中 하반기 신차로 공략

현대차는 또 올 하반기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신차 출시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미국시장에서 올 상반기 전년 대비 3.3% 감소한 33만 5000대를 판매한 현대차는 하반기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하며 상승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미국 시장에 신행 신타페를 시작으로 엘란트와 투싼 개조차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제네시스 G70 출시를 통해 고급차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고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코나 전기차 등을 출시해 친환경차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할 방침이다.

트럼프발 통상압력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수입차와 부품관세 인상 시에는 차량 가격 상승분이 고객에 전가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며 "현지 생산 비용 상승에 따른 고공 감소 우려,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한 회사의 의견을 이달 초 미국 상무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라페스타 출시를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현지 IT 기업인 딩클린트와 바이두와 손잡고 미래차 기술 협력에 나선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시장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오는 9월 이후 다양한 이벤트 및 신규 트림 출시 등으로 고객 관심을 높일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딩클린트사와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성준 기자 ysw@

# 발행주식 초과수량 입고 안된다... 증권사 전산시스템 개선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사전방지  
실물주식·대량매매 확인 절차 추가

삼성증권 배당 오류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이 개선된다.

또 도난·위조 주식이 입고돼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물 주식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확인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매도를 금지하고 주식 대량매매(블록딜)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가 추가된다.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일 이 같은 증권사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금감원은 한

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과 함께 32개 증권사와 코스콤의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들은 주식 실물 입고 및 대체 입·출고 시 발행 주식 수를 넘는 주식 수량이 입고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증권의 경우 발행 주식 수(8930만주)를 훌쩍 뛰어넘는 28억주가 우리사주 배상시스템에 잘못 입고돼 사상 초유의 배당 오류 사태가 벌어졌다.

또 도난·위조 주식 등 사고 주식이 증권사에 입고되거나 거래되는 것을 막고자 실물주식 입고가 의뢰될 경우에는 예탁원과 증권사의 확인 전까지는 매도를 제

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는 주식 실물입고 시 영업점에서 실물주식 금액대별로 책임자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책임자 승인 없이 담당자 입력만으로 주식 실물입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주식 매매주문과 관련된 시스템도 개선된다.

블록딜 시스템의 경우 현재 증권사 담당자가 입력하면 매매가 체결되는데 앞으로는 50억원 초과 주문 시 증권사 책임자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가 거부 기준인 상장주식 대비 5% 이상의 대규모 호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주문전송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배당 오류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총 발행주식수를 초과한 수량은 입고되지 않도록 증권사의 전산시스템이 개선한다. /금융감독원

또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에 따라 기관투자자들이 직접 주문하는 DMA(직접주문접속)를 이용하더라도 주문이 보류되도록 개선한다. 해외주식도 대량·고액 주문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나타나 주문이 보류되는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주문금액이 30억~60억원 또는 상장주식 수 1~3%의 경우 증권사가 경고 메시지를 내고 주문액이 60억원 초과 또는 상장주식 수 3% 초과 시에는 주문이 보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yusoul91@